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on Parenting Stress: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고강호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Kang-Ho Koh(koko@ync.ac.kr)

요약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협력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 145명의 설문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는 배우자의 협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심어 : | 장애아동 어머니 |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 배우자협력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on parenting stress and find out if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and parenting stress. For such a purpose, this study surveyed 145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who are using the day care center exclusive for handicapped children and analyzed their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firstly,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has direct influence on the parenting efficacy. Secondly,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perceived by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has direct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Thirdly,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between the degree of cooperation of the spouse and parenting stress, which means that parenting efficacy increases as the mother perceives that she is receiving more cooperation of the spouse in the process of raising the child and the increased parenting efficacy has an influence on the reduction of parenting stress.

■ keyword : | The Mother of a Handicapped Child | Parenting Efficacy | Parenting Stress | Cooperation of the Spouse |

I. 서론

가족 내 장애아동이 있을 때 이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며 장애가 단기간에 치료되는 것이 아닌 일상을 지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족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은 매우 커지게 된다[1].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은 2,668,4천명으로 추정되며,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는 가족구성원이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았다[2].

특히 우리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책임과 역할은 어머니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가족구성원들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만, 어려움도 경험하고 특히,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과중된다.

장애아가 태어나면서 그 가족들은 하나의 커다란 위기를 맞고 더 많은 적응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식사 제공과 양육 과제의 책임, 일정의 변경, 의료적인 사항과 유아들의 요구 충족 활동,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의무와 결혼 관계의 재적응 등이다[3]. 이는 자녀의 장애 그 자체보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일,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등이 장애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양육은 장기간의 치료, 재활 및 교육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는 자아기능의 저하나 우울 등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사회활동을 스스로 제약한다. 더욱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로 인하여 부모들의 대인관계는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행복감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4].

특히, 가족이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머니의 노력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단지 지지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가 그렇게 힘들냐고 하고 양육 상의

어려움을 알아주지 못하며 아이를 치료실과 교육기관에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빨리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또는 그와는 다르게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가 매우 정상적이어서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를 끌고 다니며 힘들게 하냐고 엄마의 노력을 오히려 평가절하 하는 경우도 있었다[5].

장애아동 어머니와 비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였다[6][7]. 이러한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높이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장애아동 학대의 경우 방임보다는 정서적 학대의 위험성이 높았는데[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의 공격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9].

자녀 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10][11], 자녀 양육을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두기 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자녀의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어머니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면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역할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우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은 과중되므로 자녀 양육 상황에서 배우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협력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뿐 아니라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가 배우자의 양육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은 곧 양육스트레스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협력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양육효능감은 배우자의 협력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양육스트레스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이며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된 일상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할 수 있다[12].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3][13-16][34], 대부분 어머니의 여가 및 활동시간 제약, 신체적인 어려움, 배우자 협력, 우울 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단순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매개역할을 하면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에 끼치는 영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고[14][17-19], 만성질환아동 가족의 연구에서도 과중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심리적으로 안정과 적응을 가지고 온다[20]. 이러한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참여와 협력이 어머니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 중 가족의 지지체계가 중요하며, 가족의 지지체계 중에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녀양육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의지하며 대처해 나가 수 있는 협력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부모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21].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데[22], 장애

아동의 신체활동이나 놀이터에서 하는 신체놀이들을 이용하는데 아버지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 또한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사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도 모에게 채증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양육효능감에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있었다[5].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배우자의 참여와 협력은 어머니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어머니 혼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아버지가 참여하고 어머니의 어려움을 인정해주면 심리적인 위로 및 안정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신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양육효능감은 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13], 자녀의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높지만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내적 신면체계와 자기조절능력을 의미하는 양육효능감의 역할이다[1]. 자녀양육과 관련해서 어머니가 자신감을 잃고 부모역할에 대한 과제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곧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23].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보고하고 있다. 장애아동 관련 요인으로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한 달 평균 장애자녀의 교육과 치료비용 정도와 어머니의 특성으로는 나이, 동거가족 수, 월평균 수입, 장애자녀 돌봄 시간, 학력, 직업유무[13][19][24][25] 등이 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장애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10세 미만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미취학아동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고,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와 전인적인 발달지원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대구 지역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기관에 조사 협조를 구하였으며, 설문 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어린이집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장애아동 등원 시 어린이집 담당교사들이 직접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형식이며,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동안 진행되었으며, 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187부가 회수되었으며, 무응답이 있거나 장애아동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총 145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2.1 배우자의 협력정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배우자의 협력정도이다. 이 측정도구는 임은자(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며[26], Abidin이 개발한 Parenting Alliance Inventory(PAI)의 하위척도인 Teamwork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하였다[27].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12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의 협력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alpha=.956$ 으로 나타났다.

2.2 양육효능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양육효능감이다. 이 측정도구는 신숙재(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으로, 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번안한 것이다[27]. 원칙도에서는 부모효능감과 부모로서의 불안감 두 요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효능감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7][28], 총 9문항이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문항이 제외되어 7문항을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alpha=.851$ 로 나타났다.

2.3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양육스트레스이다. 이 측정도구는 이한우(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15], 1990년도에 Abidin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검사(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배인숙(1993)과 신숙재(1997)가 번안하였다[27][29]. PSI는 크게 3가지 영역 즉, 아동영역과 부모영역,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영역으로 구성된 총 120문항이나, 이한우(2002)는 가족학 관련 교수 2명, 특수교육 교사 2명과 함께 2차에 걸친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아동 영역(12문항)과 부모 영역(12문항)으로 나누어 총 24문항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15]. 이 측정도구는 장애아동 어머니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30],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아동 영역 5문항, 부모 영역 7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응답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alpha=.830$ 으로 나타났다.

2.4 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과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등급, 한 달 평균 장애 자녀의 교육과 치료비용 정도를 조사하였고,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동거가족 수, 월평균 수입, 장애자녀 돌봄 시간, 학력, 직업유무를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비연속변수는 더미 처리하였는데, 아동의 성별은 남성=1, 여성=0,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1, 정신적 장애=0, 장애등급은 중증장애(1-2급)=1, 경중장애(3-6급)=0,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1, 대졸이상=0, 직업은 있다=1, 없다=0으로 더미 처리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방법은 첫째, 장애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평균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의 영향력과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31].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고,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며, 3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이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매개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3명(57.2%), 여자가 62명(42.8%)이고, 나이는 4세 이하 51명(35.2%), 5-6세 34명(23.4%), 7-8세 34명(23.4%), 9-10세 26명(17.9%)으로 평균 나이는 5.8세였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6명(4.1%), 뇌병변장애 31명(21.4%), 청각장애 1명(0.7%), 언어장애 16명(11.0%), 자폐성장애 35명(24.1%), 지적장애 56명(38.6%)이었다. 장애등급은 1급인 경우가 51명(35.2%), 2급인 경우가 36명(24.8%), 3급인 경우가 28명(19.3%), 4급인 경우가 3명(2.1%)이며, 기타로 응답한 경우가 27명(18.6%)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한 달 평균 장애자녀의 교육 및 치료비용은 20만원 이하 31명(24.4%), 21-40만원 이하 44명(34.6%), 41-60만원 이하 34명(26.8%), 61만원 이상 18명(14.2%)이며, 평균 42만원이었다.

표 1. 장애아동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83	57.2
	여	62	42.8
	합계	145	100.0
연령	4세 이하	51	35.2
	5세~6세	34	23.4
	7세~8세	34	23.4
	9세~10세	26	17.9
	합계	145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6	4.1
	뇌병변장애	31	21.4
	청각장애	1	0.7
	언어장애	16	11.0
	자폐성장애	35	24.1
	지적장애	56	38.6
	합계	145	100.0
장애등급	1급	35.2	35.2
	2급	24.8	24.8
	3급	19.3	19.3
	4급	2.1	2.1
	기타	18.6	18.6
	합계	145	100.0
교육 및 치료비용	20만원 이하	31	24.4
	21만원~40만원	44	34.6
	41만원~60만원	34	26.8
	61만원 이상	18	14.2
	합계	127	100.0

2. 장애아동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나이로는 20대가 14명(9.7%), 30대가 83명(57.2%), 40대 이상이 48명(33.1%)로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동거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이 55명(38.0%), 4명이 66명(45.5%), 5명 이상이 24명(16.5%)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13명(9.8%), 151-300만원 이하가 58명(43.6%), 301-450만원 이하가 38명(28.6%), 451만원 이상이 24명(18.0%)으로 평균 수입은 350만원 정도였다.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돌보는 하루 시간을 조사한 결과, 5시간 이하 28명(20.1%), 6-10시간 이하 63명(45.3%), 11-15시간 이하 22명(15.8%), 16시간 이상 26명(18.7%)로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으로는 초졸 이하 3명(2.1%), 중졸이하 3명(2.1%), 고졸이하 41명(28.3%), 대졸이하 92명(63.4%), 대학원 이상이 6명(4.1%)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9명(33.8%),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6명(66.2%)로 나타났다.

표 2.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20세-29세	14, 9.7
	30세-39세	83, 57.2
	40세 이상	48, 33.1
	합계	145, 100.0
동거가족 수	3명 이하	55, 38.0
	4명	66, 45.5
	5명 이상	24, 16.5
합계	145, 100.0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13, 9.8
	151~300만원	58, 43.6
	301~450만원	38, 28.6
	451만원 이상	24, 18.0
	합계	133, 100.0
장애아동 돌봄시간	5시간 이하	28, 20.1
	6~10 시간	63, 45.3
	11~15시간	22, 15.8
	16 시간 이상	26, 18.7
	합계	139, 100.0
학력	초졸 이하	3, 2.1
	중졸	3, 2.1
	고졸	41, 28.3
	대졸	92, 63.4
	대학원졸	6, 4.1
합계	145, 100.0	
직업유무	직업 있음	49, 33.8
	직업 없음	96, 66.2
	합계	145, 100.0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이, 배우자 협력정도의 평균이 3.46점,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3.06점, 양육스트레스의 평균은 2.83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구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협력	1.00	5.00	3.46	0.77
양육 효능감	1.86	4.57	3.06	0.56
양육 스트레스	1.33	4.42	2.83	0.62

4. 회귀분석

4.1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단계는 [표 4]과 같이,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값이 최소 .532에서 최대 .92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가 최소 1.084에서 최대 1.881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1단계는 장애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우자 협력을 투입하였고, 모형설명력은 28.6%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협력, 아동나이, 장애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배우자 협력정도가 많을수록, 아동나이가 높을수록, 아동의 장애가 신체적 장애일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 이는 아동의 나이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어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정신적 장애보다는 신체적 장애일 경우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 어머니의 효능감을 높이게 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4.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7.787	3.223		2.416	.017
아동성별	1.241	.655	.154	1.895	.061
아동나이	.548	.182	.322	3.010	.003
장애유형	1.453	.689	.179	2.109	.037
장애등급	-.200	.738	-.025	-.271	.787
교육 및 치료비용	.020	.013	.133	1.516	.132
어머니 나이	-.046	.083	-.059	-.560	.577
가족 수	-.146	.331	-.037	-.440	.661
장애 자녀 돌봄 시간	.105	.067	.139	1.575	.118
월평균 소득	.001	.002	.045	.490	.625
학력	.977	.789	.107	1.239	.218
직업유무	.583	.751	.069	.776	.440
배우자 협력	.212	.042	.436	4.999	.000

R² = .360 Adjusted R² = .286 F(p) = 4.911(.001)

4.2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단계는 [표 5]와 같이, 배우자 협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값이 최소 .532에서 최대 .92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가 최소 1.084에서 최대 1.88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2단계는 장애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우자 협력을 투입하였고, 모형설명력은 20.8%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협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배우자 협력정도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애아동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머니 혼자서 부담하기 보다는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협력한다면 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58.487	6.245		9.365	.000
아동성별	-1.902	1.270	-.128	-1.498	.137
아동나이	-.158	.353	-.051	-.448	.655
장애유형	.084	1.335	.006	.063	.950
장애등급	2.195	1.429	.148	1.535	.128
교육 및 치료비용	.002	.026	.007	.074	.941
어머니 나이	-.223	.161	-.153	-1.387	.168
가족 수	.698	.642	.097	1.086	.280
장애 자녀 돌봄 시간	.138	.129	.099	1.064	.290
월평균 소득	.004	.004	.083	.849	.398
학력	-2.245	1.528	-.133	-1.469	.145
직업유무	-.256	1.456	-.016	-.176	.861
배우자 협력	-.486	.082	-.544	-5.919	.000
R ² = .289 Adjusted R ² = .208 F(p) = 3,560(.000)					

4.3 배우자 협력정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3단계는 [표 6]과 같이, 배우자 협력과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허용값이 최소 .489에서 최대 .892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가 최소 1.121에서 최대 2.04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3단계는 장애아동 및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배우자 협력, 양육효능감을 투입하였고, 모형설명력은 23.6%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협력, 양육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배우자 협력정도가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배우자 협력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2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20.8%에서 3단계 모형의 설명력이 23.6%로 증가하였고, 배우자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력이 -.544에서 -.448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표 6. 배우자 협력정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p
상수	61.653	6.303		9.781	.000
아동 성별	-1.397	1.268	-.094	-1.101	.273
아동 나이	.065	.361	.021	.180	.858
장애 유형	.675	1.339	.045	.504	.615
장애 등급	2.113	1.405	.143	1.504	.136
교육 및 치료비용	.010	.026	.036	.395	.694
어머니 나이	-.242	.158	-.166	-1.529	.129
가족 수	.638	.632	.088	1.011	.314
장애 자녀 돌봄 시간	.181	.129	.130	1.403	.164
월평균 수입	.004	.004	.093	.968	.335
학력	-1.848	1.512	-.110	-1.222	.225
직업유무	-.019	1.434	-.001	-.013	.990
배우자 협력	-.400	.090	-.448	-4.456	.000
양육효능감	-.407	.186	-.221	-2.189	.031
R ² = .320 Adjusted R ² = .236 F(p) = 3,773(.000)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협력정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이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Z값이 -2.008 (p=0.04)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표 7.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구분	
배우자 협력 → 양육효능감 → 양육스트레스	
Z	p
-2.008	0.0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협력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배우자의 협력과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 145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 정도는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배우자의 협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배우자의 협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지각하는 배우자의 협력 정도와 양육스트레스 사이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 양육과정에서 어머니는 배우자의 협력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참여와 협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가 가족의 경제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어머니가 주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며 자녀 양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자신도 자녀의 장애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되었듯이,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고,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1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쳤다[32]. 양

육과정에서 아버지의 협력과 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위안을 가지고 온다. 자녀양육을 어머니의 주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함께 자녀 양육에 동참하고, 특히 자녀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협력은 어머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장애에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 등을 이해해야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아버지 자조모임을 통한 자녀 이해와 양육방법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자조모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버지들은 사회적 역할로 인하여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 아버지들의 모임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루어져 자녀 양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고은(2011)은 장애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신념과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수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들을 위하여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33].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해야 한다. 양육효능감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머니의 개인 내적인 자원과 강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장애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출산하고, 장애자녀의 양육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어머니들 간의 연계와 공유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경험이 풍부한 어머니와 미취학아동 어머니를 연계하여 정보제공 및 심리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양육경험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도 강화하고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미취학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장애와 관련된 재활이나 치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자녀와 함께 놀이와 치료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아동에게 필요한 양육방법에 대해서도 익혀나가면서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장애아동 어머니는 비장애아동 어머니보다 아동을 돌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자녀 돌봄 시간이 평균 10시로 어머니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 돌봄과 양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고, 아동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많으며, 자녀의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아동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어머니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이 과증된다. 어머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니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여성으로서 자기 계발과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동안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버지 모임, 아버지 공동육아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데, 현금이나 물건과 같은 물질적 지지보다는 존경, 인정,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와 실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기회를 알려주는 정보적 지지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낮춘다[5]. 아버지뿐 아니라 확대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장애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인정과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손재익,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pp.89-109, 2010.

[2]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7.

[3] 장은정,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논문고찰: 2000년대 논문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제5권, 제2호, pp.123-137, 2007.

[4] 전병주,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복지서비스 인식 및 삶의 질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0호, pp.492-502, 2016.

[5] 한선혜, 박승호, “자폐성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자폐성장애연구, 제15권, 제1호, pp.87-120, 2015.

[6] 이주옥, “일반 유아 어머니와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5호, pp.403-428, 2008.

[7] 이은주, “취학 전 유창성 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반 아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비교,” 특수교육, 제8권, 제2호, pp.203-218, 2009.

[8] 김현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8권, 제1호, pp.113-134, 2014.

[9] G. R. Patterson, “Stress: A Change Agent for Family Process,” pp.235-264. in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edited by N. Garnezy & M. Rutter. New York: McGraw-Hill. 1983

[10] F. J. Floyd, L. A. Gilliom, and C. L. Costigan,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Vol.69, No.5, pp.1461-1479, 1998.

[11] F. Lionetti, M. Pastore, and L. Barone, “Parenting stress: The roles of attachment states of mind and parenting alliance in the contex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 Vol.15, No.2, pp.75-91, 2015.
- [12] 김미량, 이연주, 이정호,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여가제약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호, pp.366-375, 2009.
- [13] 임원균, 오은경,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요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1권, pp.173-200, 2014.
- [14] 김정, 이지현,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26권, 제5호, pp.245-261, 2005.
- [15] 이한우, *발달장애아동 가족지원 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16] 하수민,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7] 이정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5-19, 2003.
- [18] 노성향, “아버지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참여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제14권, 제3호, pp.45-59, 2014.
- [19] 현경미, 강대옥, “장애자녀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pp.119-139, 2017.
- [20] T. Wysocki and L. Gavin, “Parental Involvement in the Management of Pediatric Chronic Diseases: Associations with Adherence, Quality of Life, and Health Statu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31, No.5, pp.501-511, 2006.
- [21] D. M. Teti and D. M. Gelfand,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Vol.62, No.5, pp.918-929, 1991.
- [22] 문혁준,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제26권, 제5호, pp.139-149, 2005.
- [23] 한유미, 오경숙, “부부간의 부모효능감에 따른 양육분담 및 양육스트레스,”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제19권, 제4호, pp.547-558, 2008.
- [24] 김덕주, 용미현, “장애아동 부모의 작업수행능력과 여가만족이 장애아동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587-596, 2017.
- [25] 김인옥, 이원령,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7권, 제1호, pp.101-120, 2011.
- [26] 임은자, *지체장애여성 자녀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27] 신숙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28] 이지영, 이정희, “초등장애아동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정서조절전략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제9권, 제3호, pp.443-458, 2018.
- [29] 배인숙, *자폐아동의 적응행동 수준과 그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30] 김선훈, 박지연, “통합촉진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pp.183-200, 2010.
- [31]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 [32] 최형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학가정학회지, 제43권, 제4호, pp.111-123, 2005.
- [33] 김고은, “장애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12호, pp.443-465, 2011.
- [34] 박선원,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체계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594-610, 2016.

저 자 소 개

고 강 호(Kang-Ho Koh)

정회원



- 2002년 2월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7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행정, 장애아동보육